

태초부터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월 17일 (토) 제 151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경이 '권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뉴스위크 신년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발적 보도...공식 사과 야기

'성경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 모든 '권위'는 이성 심판 앞에 서야 했다. 이성에 대한 강조, 역사주의의 대두, 비판적 사고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21세기에 주어진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18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성경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독교가 '경전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다. 즉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진리를 얻기 위해 해탈을 하거나, 각성해서 깨닫거나,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이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초대교회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박해와 순교를 감수하면서 성경을 지켰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를 외치며 다시 한번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했다. 한마디로, 성경은 기독교의 전부다!

그런데 2014년 성탄절 선물(?)은 '뉴스위크'지가 보내왔다. 바로 커버스토리로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바로 "성경: 너무 왜곡되었기에 그것이 바로 죄(The Bible: So Misunderstood It's a Sin)"라는 제하로, 커트(KURT EICHENWALD) 기자는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그것도 문맹 수준이면서 정치나 동성연애, 낙태와 같은 민감한 쟁점들에 성경을 인용한다고 광장히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먼저 뉴스위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2015년 신년 호 커버스토리로 지난 달 23일 온라인을 통해,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들뜬 분위기를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만큼 커트의 일방적인 기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도발성 기사로, 온통 과장된 정보들로, 크리스천들을 도매값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동성 결혼 반대, 공립학교 기도 부활, 진보 일색의 민주당 정책 노선들에서 미국을 구원 그리고 야외 풋볼구장에서의 대규모 기도 집회 등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이며, 카페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선택해 이용하는 '카페테리아 크리스천들'이라고 신랄하게 헐뜯음을 한다.

커트 기자에 따르면,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자신들의 편견이나 신념들을 보충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지도 못하면서 성경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

말씀들을 왜곡하며, 성경 번역들을 수정해 성경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필요한 구절만을 취사선택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성경문맹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지구촌 기후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노아에게 더 이상의 홍수가 없다고 약속했고; 구약의 모세 율법은 바로 미국 정부 체제이며; 창조론은 공립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며; 시리아 반군을 돕는 것은 종말이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모든 논의들은 복음주의적 정치가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들이 모두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에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2012년 퓨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처럼 온전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미국인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커트는 복음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허례와 위선에 가득찬 바리새인"이라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비판한다.

(3면으로 계속)

국제 정치, 경제 상황 새 국면 맞는다!

WSJ, JP모건 투자전문팀이 예측하는 '2015 정치, 경제 상황 전망 보도'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 장, 단 기간에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에, 미국내 3%안에 드는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 이들에게 항상 새해 전망은 바로 투자자의 초점 반경과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된다.

한국 증권가에서도 소위 "짜라시"라고 불리우는 사실 정보의 정확도는 정치와 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 최고 책임투자팀에 '2015 세계경제전망'을 물었고, 그 가상 시나리오를 보도했다(Some Possible Market Surprises for 2015: J.P. Morgan Private Bank identifies unexpected opportunities and risks. Could a tech bubble form?).

북한 내 쿠데타로 통일...경기 후퇴 직면 달러 약세 장기금리 하락세·IT 거품 아시아금융 홍콩 대신 싱가포르 상하이 부상

1. 유럽과 일본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계속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5%대에 그치면서 정체된다.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 금리는 계속 하락한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2% 아래로 내려앉는다. 투자자들이 다시 '캐리트레이드'(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에 나서면서 신흥시장 통화는 상승세를 보인다.

2. 2015년 초에 미국 원유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속도가 붙고 안정되다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정책상 '뒷북'을 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책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놀라게 한다.

3. 통화정책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미 증시가 저조한 성적을 낸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실행하는 경기부양책은 긍정적인 경제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투자 심리도 반등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유럽, 일본, 신흥시장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미 달러의 가치는 두드러지게 상승하지 않는다. 미 증시는 여타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진다.

4. '비이성적 과열'이 다시 나타나면서 IT 거품이 형성된다. 자금이 두둑한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보다 광범위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데 실패한다.

(3면으로 계속)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조진모 목사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진희 목사



선교 칼럼
GMS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21세기 선교패러다임
박신욱 선교사



미주 교회연합 기도성회

"HEAL OUR LAND 이땅고쳐주소서"



일시 : 2015.1.22(목)~25(주일)
22일(목) 7:30pm
23일(금) 5:30am, 7:30pm
24일(토) 6:00am, 7:30pm
25일(주일) 1,2,3,4부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달라스 지역	2015년 2월 18일(수)~20일(금)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목사)
뉴욕 지역	2015년 3월 18일(수)~20일(금) 뉴욕프라이미교회 (김남수 목사)
워싱턴 DC 지역	2015년 4월 15일(수)~17일(금)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
시카고 지역	2015년 5월 13일(수)~15일(금) Lake View 장로교회(강민수 목사)
시애틀 지역	2015년 6월 24일(수)~26일(금) 시애틀형제교회(권준 목사)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강사: 정인수 목사
(애틀랜타장로교회 담임)



강사: 김남수 목사
(뉴욕프라이미 담임)

주일예배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기도원 TEL: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주 관 :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후 원 : JAMA, OC교협, OC 목사회, OC 평신도 전도연합회



시론

올해라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늘 새해는 다짐의 해입니다. 마음의 다짐과 의지는 매해 되풀이 됩니다. 지난 한해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거 같아 마음 한켠이 쓸쓸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도 이 모저모로 우리를 지켜주시거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발견하면 그 쓸쓸함에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들이 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 7:7).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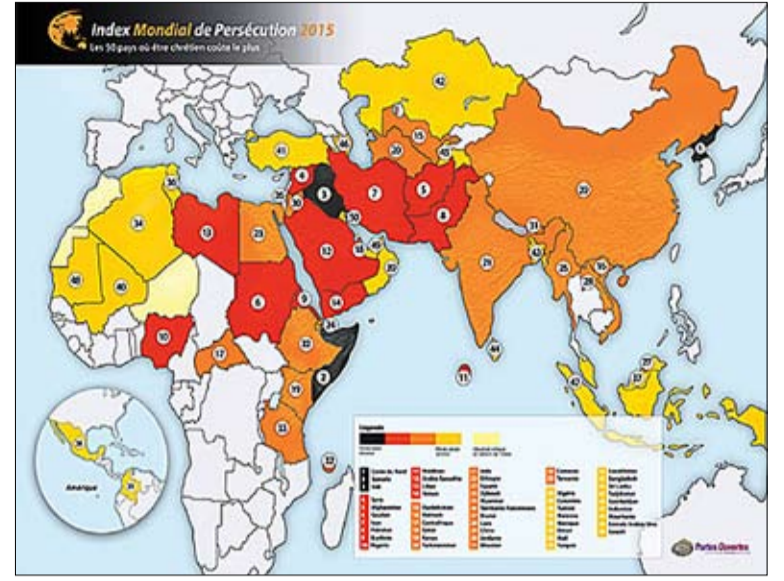
사람이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는 것은 신앙의 나태, 게으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 사람이 다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20년전 일입니다.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에게 주신 첫 번째 숙제가 각 가정의 가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어둔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훈으로 까지는 정리가 안된지라 이 기회에 신앙의 가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 애용했던 가훈에 살아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를 가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늘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평생 "큰일을 맡겨주면 잘할 텐데, 아직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하고 항상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시시한 작은 일을 할 수 있냐"고 늘 큰소리만 뽐낼 거러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저는 중등부 다닐 때 목사님 설교중 "게으름도"와"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악하고 착한"의 기준이 "게으름과 충성"이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또 무엇이든간에 즉 그 자리가 아버지든, 자녀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다 큰 일을 맡기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나 또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리라 다짐해 보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5년을 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보다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제주도에도 조랑말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2명의 사랑스런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좀 크자 할아버지에게 서로 조랑말을 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얼마나 난처한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작은 병아리 1마리씩을 주면서 잘 길러 보라고 했습니다. 큰 손자는 모이를 쪼아 먹으며 이리저리 돌아 다니는 병아리와 들판에 있는 조랑말을 한번씩 바라보고는 한숨만 씁니다. 둘째 손자는 열심히 병아리에게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성실히 돌봅니다. 1주일에 지나자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각기 병아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큰 손자의 병아리는 기운도 없고 생기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합니다. 작은 손자의 병아리는 기운도 생생하고 생기도 돌고 줄곧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할아버지는 조랑말을 둘째 손자에게 줍니다. 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큰 손자에게 말합니다. '병아리도 잘 키우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조랑말을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 2015년도 새해입니다. 올해라고 뭐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다면 세상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은 말과 소의 눈에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보다 훨씬 큰 소와 말을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블랙홀이 되어 빠져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세상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시고, 주어진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최상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보다 큰일을 맡기시고 더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후회나 아니라 감사가 채워집니다.

박해현장 속 선교의 새 문이 열린다!

오픈도어스, '2015 기독교박해 순위발표...북한 1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15년도 기독교 박해순위(World Watch List)가 발표됐다('Not Forgotten: The Top 50 Countries Where It's Most Difficult To Be A Christian: Open Doors says 2014 saw the worst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the 'modern era' - but not because of violence).

이 순위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박해지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이며, 1991년부터 매년 제공돼왔다. 오픈도어스는 정밀조사를 통해 한 명의 크리스천이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개인·가족·지역 사회·국가와 교회 생활에 관한 항목들과 여기에 폭력의 정도를 함께 측정해 순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3년째 연이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전역에서 김정일의 삼촌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의 처형과 관련하여 만명 이상이 숙청돼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상위 10개국을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

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크리스천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약 7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고, 2014년도에는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란(7위, 작년 9위)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박해지수의 증가와 함께 순위가 상승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또 다른 중심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프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라오스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박해지수가 상승했다.

중국(29위, 작년 37위), 말레이시아(37위, 작년 40위), 인도네시아(47위, 작년 47위)에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있지만, 정부와 사회 구조적인 압박과 통제가 여전히 심해 크리스천

제르바이잔(46위)은 몇 년 동안 리스트 밖에 있었지만, 이번에 리스트에 포함 됐다. 높은 범죄율로 잘 알려져 있는 멕시코는 특히 교회와 범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범죄 집단들이 교회를 자금 획득을 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크리스천들이 폭행과 살해를 당하고 있다.

작년보다 증가세... '이슬람극단주의'와 '독재주의'가 주원인 IS 등 극단주의 막기 위해 기독교와 이슬람 연합 움직임

레아, 나이지리아이다. 이중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가 작년보다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상위 50개국 중 40개국에서 주요 박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그 다음으로는 '독재주의 편협성'이 주된 원인으로 북한을 포함한 상당한 국가에서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0개 국가의 총 박해지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

이라크(3위, 작년 4위)와 시리아(4위, 작년 3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난민이 됐다. 이라크에서는 여러 주들에서 이슬람국가(IS)가 칼리프 체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난민이 됐고, 여성과 아동들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디스트(Jihadist) 단

리카 지역이다. 이러한 극단주의는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지하디스트 단체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장악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리스트에서 박해지수의 높은 증가를 보인 12개의 국가들 중 8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소말리아는 작년에 이어 2위이며, 수단(6위, 작년 11위)과 에리트레아(9위, 작년 12위)와 나이지리아(10위, 작년 14위)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수단과 에리트레아는 1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며, 나이지리아는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올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약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한동안 박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12개의 국가들이 2015년

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종교 극단주의의 위험 가운데 있다.

남아시아의 인도(21위, 작년 28위)는 작년 5월에 힌두 근본주의 단체가 모체인 집권당 인도국회의 높은 증가를 보인 12개의 국가들 중 8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특히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역계종 운동과 그의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38위), 터키(41위), 아

터키는 기독교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함께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사회적 적대감과 압박이 심각하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자주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당국이 통제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박해를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8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p>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p>	<p>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p>
---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 - (2) 콘스탄티누스 2세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콘스탄틴은 무려 30여년을 다스리며 나라를 기독교화 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헌신은 경이로웠다. 곳곳에 산재한 기독교 성지를 찾아다니며 유물들을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이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남겨진 로마의 십자가 성당에는 한편 강도가 짙어졌던 십자가의 형들과, 주님께서 박하셨던 십자가의 대못, 그

리고 십자가의 명패, 또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위 조각 등등이 수집되어있다. 그 뿐인가?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는 스칼라(Scala) 계단(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기 위해 걸어가셨던 28개의 돌계단으로 가톨릭 교인들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면서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있음)을 가져와 스칼라 계단을 만들게 했다. 그녀는 아들의 왕권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에 놀라운 헌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콘스탄틴 대제는 부상하는 페르시아를 향한 전쟁을 추진하던 중에 과로로 죽었으니 그 때가 337년이었다. 수많은 기독교도들은 그의 장수를 염원하였는데 말이다. 그의 죽음은 곧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권력의 속성이란 혈육에 대한 사랑이나 양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후 파우스타와 사이에 세 아들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20살, 콘스탄티우스는 19살, 그리고 콘스탄스는 17살이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국을 삼등분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부리타니아, 히스파니아를, 콘스탄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그리고 나머지 제국 동부를 콘스탄티우스가 다스리도록 했다. 340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막내동생 콘스탄스에게 아프리카를 양도하려고 했으나 코우움을 치자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했다. 그러나 전사함으로써 제국은 거대한 서방을 다스리게 된 콘스탄스와 동방의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로

양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콘스탄스는 신학적으로 유명한 감독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었고, 형 콘스탄티우스 2세는 이단으로 기운 아리우스파를 지원하는 일로 묘한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막내 콘스탄스에게 형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를 적대시하는 아타나시우스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동생 콘스탄스 때문에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를 다스리던 콘스탄스는 휘하 장수인 게르만족 출신 장군 마그네티우스가 봉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그 자신이 로마의 황제임을 참칭했다. 이 일로 인해 어거스틴은 로마의 오스티아 항구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장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뱃길이 막혀버리는 불편함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콘스탄티우스 2세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서둘러 강화로 끝내고 도나우 강 유역을 맡았던 베트라니오에게 항복을 받아냈다. 항상 위기는 전방의 장군들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후 마그네티우스와 3년여 동안을 내전을 벌여 그가 거느린

군사 3분지 1을 죽인 후 비로소 그를 결국 굴복시킬 수 있었다. 마그네티우스를 굴복시킴으로 그는 아버지 콘스탄틴 대제처럼 통일천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주도면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성격은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너는 조심성을 갖게 되었고 그런 조심성은 황제로서는 안성맞춤의 자세였다.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주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 같은 군사적 자질은 없었으나 조직력과 또한 강한 책임감을 갖추고 있었다. 고로 체제의 안정에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었고 군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며 황제들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야전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보병들로 하여금 강한 기병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약체인 동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부상한 페르시아 군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군사력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는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한 건물을 남겼다. 즉 이스탄불에 있는 웅장한 소피아 성당은 그가 360년에 건축한 건물이다. 50만 명이 넘

은 인원이 동원되어 6년 동안 쉬지 않고 공사함으로써 완공을 보았다. 그 건물은 역사와 함께 많은 수난을 당해야 했는데 1204년에는 제 4차 십자군에 의해 점령당한 후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었고, 1261년에는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그 후 이슬람의 술탄이 점령한 후 또 이름을 바꿔야 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독교적 그림들을 회칠한 후 이슬람의 그림으로 바뀌어 버리는 수난을 당해야 했다. 그 돔 꼭대기에 달린 이슬람을 상징하는 반달 장식의 조각을 보고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천국에 간 수많은 성도들은 뒤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황제였으나 종교적으로 정통인 아타나시우스를 거절하고 후에 이단으로 낙인찍혔던 아리우스를 쫓은 것은 오히려 티 같았다. 그는 이교도 박해법을 제정했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전의 파괴를 독려했다. 그는 자신에게 신학적으로 저항하는 아타나시우스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9면으로 계속)

푸 / 른 / 초 / 장

오은규 선교사
(Mila Mission 대표)



얼마전 뉴스에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졌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다시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당시 단 2대의 비행기로 3시간 만에 110층이나 되는 건물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15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집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집을 허무는 데는 아주 쉽게 허무는 것을 봅니다. 가끔 TV를 보면 포트레인이나 다이너마이트 몇 개를 가지고 빌딩 하나를 쉽게 허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우기는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허물기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왕이 어렵게 쌓은 신앙의 개혁을 단 한순간에 무너트린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 받은 15년은 무의미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

자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인 400년의 사사시대가 왜 온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사사시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겨주어야 할 것을 전통과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곤하지 않게 공부하며 새벽잠을 깨워 새벽기도 하는 전통, 나 쓸 것도 모자라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리는 이 열정, 이런 것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사람의 회심

때때로 우리는 나 한사람이 돌아선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한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동화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졌나고 말하지 말라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아니하겠는가?/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졌나고도 말하지 말라네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탔을 때는 그 배안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을 때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역대하 33장)

처음 나오는 히스기야왕의 아들 므나셋왕은 12살 때 왕이 되어 55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므나셋왕은 히스기야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은 후에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에 와서 히스기야왕이 평생 바쳐 이루어놓은 개혁의 물결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왕이 없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팎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습니다. 드디어 6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왕인 므나셋의 아들, 아몬왕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 므나셋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왕위는 히스기야에서 므나셋으로, 므나셋에서 아몬으로 잘 계승되었지만 반면 신앙은 전혀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왕 당대에 가졌던 좋은 신앙을 그의 아들과 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2:7, 10). 우리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얼마의 물질이나 집이나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남

군대를 동원하여 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2절을 보면 므나셋이 고통을 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17절을 보면 므나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줍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3)

Class 2-Botiphar's house

요셉이 다니는 광야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교실은 보디발의 집입니다.(창39:1-3).

보디발의 집에서 죄 거절하는 방법 철저히 훈련 코람데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인내 배워

야하기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합니다.

Curriculum-유혹(Temptation)
요셉은 이 교실의 커리큘럼을 따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Test, Train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의 거절하는 자세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How to Fight-죄의 거절(Resist Sin), 인내(Endurance)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한 전문 전화 상담실이 처음 생기던 당시만 해도(1986년) 이런 문제는 쉬워했습니다. 사모들의 고민을 털어 놓을 곳도 없고 더욱더 성문제는 병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알려질까봐 가슴조리며 밤잠 설치는 사모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정신병원의 신세까지 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Diploma-Glorify God by our Holiness
그 결과 다른 어떤 죄보다 이기기 힘든 죄를 이긴 요셉은 마침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컴보디아선교사)

월 성령이 인도하는 구속의 은혜(롬8:24-28)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립니다. 주께서 세상과 사탄 그리고 아담의 부패성의 모든 굴레를 끊으시고 참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자생활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세우신 구속입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의 흐름으로 나옵니다.

화 복음의 도미노 현상(롬10:16-21)찬353장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5단계로 이뤄진 구원, 1)부르심-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영적 도미노현상을 이 개인구원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둘째, 은혜를 받은 후(20-21) 메시야를 거절한 유대인은 은혜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 하나님의 주권(롬11:36)찬503장

칼빈주의자의 구절이라고 일컫는 본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결시키는 역사와 신자의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창조세계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구원 받은 새생활의 모든 과정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들어감은 창조의 결과와 구속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롬16:17-27)찬408장

로마서 마지막에 서론의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구원의 복음에 헌신된 바울은 '내 복음'이라 했고 그 기원을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의 나타남으로 보았습니다.

음 안에 잘 머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셋째, 창3:15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능자는 주로 평강과 고요와 겸손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금 복의 근원(롬15:29)찬28장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갈 때 가지고 갈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총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롬15:29).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요1:12-13). 복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며 그 복의 총만은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노력입니다.

토 십자가 복음(고전2:1-16)찬367장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자연인(12), 둘째, 육에 속한 사람(14) 그리고 셋째,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가중심을 떠나 인간중심으로 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육에 속한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계속 그 보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바울의 문제해결의 키는 십자가복음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